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지원 【 문학-창작지원 】 심의평

<2024 경기예술지원 기초예술창작(문학)>에 투고된 작품은 시(시조), 소설, 기타 장르로 나뉘었다. 서류 미비 및 결격사유를 제외한 후 지원자의 역량과 작품소재 및 내용, 기대가치를 평가 기준으로 총 19인의 문학인을 선정했다. 수준 높은 문학적 성취를 보여주는 작품들이 상당수여서 경기도권 문학인이 지닌 저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

시와 시조의 경우는 열 편의 작품을 하나의 주제로 집약해가며 통합적으로 전개하려는 시도가 상당수여서 놀라웠다. 물론 열 편의 작품을 각각 다른 개별적 작품으로 완성하여 자신의 가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많았다. 이러한 접근과는 별개로 제출된 작품의 수월성과 고유성을 발견하려는 데에 심의위원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통 서정시를 계승하면서 본연의 자아 성찰에 충실한 시, 미시적인 세계에 천착해가면서 일상성을 탐구하는 시, 생계를 비롯한 극사실주의적 현실과 대응하는 시, 특정 모티프를 연쇄적으로 활용하면서 언어적 상상력을 실험하는 시 등 다양한 경향의 시들을 읽어볼 수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심의위원들 서로의 의견이 달라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선정된 작품들은 끊임없이 자기 세계를 갱신해 나가려는 문학정신이 살아있기에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선정되지 못한 시 작품 가운데 상당수가 우수한 작품들이어서 못내 아쉽다. 선정되지 못한 시인들은 자신의 작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

소설의 경우는 장르의 혼종이 눈에 띄었다. 기존에 정통문학과 장르 소설로 뚜렷했던 소설 장르는 어느덧 그 경계를 넘나들며 또 다른 소설의 형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다만, 유행에 치우친 소재중심주의나 대중소설의 클리셰에 그치고 있는 소설들이 있어 아쉬움도 있었지만, 다수의 작품에서는 자신의 문법을 새롭게 개척해 가려는 도전적이고 대범한 노력이 돋보였다. 이미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온 노련한 작가들의 완성도 있는 스토리텔링과 더불어 다소 거칠더라도 흥미롭고 독창적인 신예 작가들의 패기도 높이 평가했다. 물론 안정적인 문장과 개성적인 인물을 빚어내는 솜씨와 동향을 읽어내는 시각까지 고루 갖춘 작품들을 선정하는 데에 심의위원들은 힘을 기울였다. 투고작 가운데 단편, 중편, 장편을 고루 선정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축하를,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에게는 심의위원들 또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

2024.2.21.

심의위원

문태준 시인

이명랑 소설가

신수진 문학평론가, 아동문학가

전해수 문학평론가, 상명대학교 연구교수